

트럼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 위해 北과 대화… 김정은에 감사”

“얼마전까지 상상도 못했던 고무적 조치들 취해서 아직 할 일 많이 남아… 비핵화 때까지 제재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현지시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대담하고도 새로운 평화 추구를 갈등을 대체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다(we have engaged with North Korea to replace the specter of conflict with a bid and new push for peace)”고 말했다.

〈관련사진 13면〉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연설전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 6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열렬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싱가포르로 향했다며, 당시 “매우 생산적인 대화와 만남을 가졌고 미국과 북한 모두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게 양국의 이익이라는 점에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 이후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련의 고무적인 조치들을 봤다”면서 “미사일과 로켓들이 더 이상 날아다

니지 않고 있고, 핵 실험이 중단됐으며, 몇몇 군사시설들이 이미 해체됐고, 우리 인질들이 풀려났으며, 전사자 유해들이 집으로 돌아와 미국 땅에서 쉬게 됐다”고 하나하나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는 김위원장의 용기와 위와같은 조치들을 취한데 대해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도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연설에서는 “이같은 순간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도와준 많은 회원국들에게도 감사하고 싶다”면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훨씬 위대한 순간(a moment that is actually far greater than people would understand; far greater)에 도달하게 된 데 대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특별

히 감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년 전인 지난해 9월 20일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미국과 동맹국 방어를 위해선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이외엔 다른 선택이 없다”고 위협했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공정하며 호혜적인 무역이 이뤄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면서 “미국은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십년동안 미국은 거의 조건 없이 지구 상에서 가장 많이 우리의 경제를 열었다. 전 세계에서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외국산 물품들이 들어오는 자는 우리의 시장을 우리에게 공정하고 호혜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 어떤 국가들은 자기에 상품들을 우리나라에게 쏟아부었고, 자국 상품에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우리(미국)산업을 겨냥했고, 우리 국가에 대해 불공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통화를 조작했다. 그 결과 우리의 무역적자는 연간 거의 800억 달러에 이르러 왔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김정은 “속임수 쓰면 美 강력한 보복… 북한이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文대통령, 美싱크탱크 주관 행사서 김정은 발언 직접 전달
文대통령 “北, IMF·WF 가입해 개혁·개발 나설 듯 확인해줘
비핵화시 경제발전 위한 국제기구 가입에 선도적으로 힘쓸 용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을 할텐데 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많은 세계인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을 믿지 못하겠다. ‘속임수다.’ 시간끌기다”고 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문 대통령이 25일(미국 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 합동주관 행사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뉴욕의 CFR 1층 피터슨홀에서 열린 연설 뒤 객석과의 대화 시간에 김 위원장이 과연 얼마나 경제 개혁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리처드 하스(Richard Haas) CFR 회장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김 위원장의 발언을

직접 옮겼다.

문 대통령은 “나의 주관적인 판단 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본 폼페이오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도 그의 진정성을 믿기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북미 대화의 결실을 이루기 위해 지속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의사를 표명했는지 궁금하다”는 토마스 번 코리아노 사이어터(KS) 회장의 질문에 “북한 측에서도 IMF나 세계은행(WB) 등 여러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개방적인 개혁으로 나설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완료되거나 상당 부분 불가능해졌을 때 해체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는 점을 분명히 하며 추후 남측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빈약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 한국은 북한의 인프라 구축을 포함해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힘을 쓸 용의가 있다”며 “그것은 단지 북한을 돕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한계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되고 새로운 성장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한국의 능력만으로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돕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국제적으로 북한의 인프라를 지원 하는 그런 국제적 펀드 같은 것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WB라든지 세계경제포럼이라든지 또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라든지 여타 국제기구에서 북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전북도, 폭염 대응 선제적으로 나선다

폭염저감시설 확충 등 23개 사업 발굴 집중 논의
송하진 지사, “도민 안전이 최우선 가치” 지속 추진 당부

전북도가 앞으로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23개 사업을 발굴해 예산 확보와 문제점 보완 등 협업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도는 지난 21일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내년도 폭염 피해 사전예방 및 중장기 대책 방안을 논의하는 2019년 폭염 저감대책 사업 보고회를 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폭염 수준이 심각한 재년의 정도에 달해 5명이 사망하고 238명의 응급환자가 발생하였고, 2개 백만바리 이상이 폐사하는 등의 올해 폭염피해 상황을 반년교사로 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는 도지사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폭염 저감사업 확대 추진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폭염대응 추진에 필요한 협업분야 8개

실국장이 참석해 각 분야별로 2019년 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했다.

논의된 폭염저감대책 사업은 총 23개 사업으로 매년 반복적인 폭염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폭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데에 중점을 뒀다.

쿨루프, 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 확충사업, 무더위쉼터 시설개선, 냉방용품 지원 등 취약계층 보호사업, 농업 축산 수산분야 시설 개선사업, 도시 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도시숲 명상숲 조성사업 등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적 가치”라며, “각 부서에서는 폭염저감을 위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 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조속히 확보 등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2019년 폭염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성기자

체전 앞둔 전북 선수단
추석 연휴 반납 ‘구슬땀’

제99회 전국체육대회가 20일도 체남지 않은 가운데 전북 선수단이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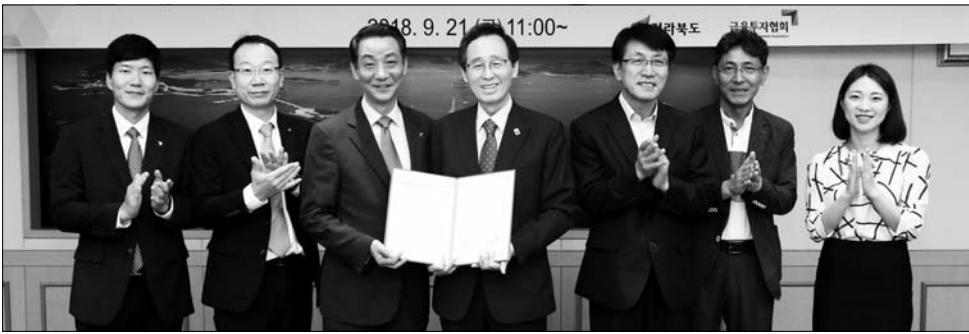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다음달 익산 등 도내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전북 선수단이 추석 명절도 잊은 채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연휴를 함께 하지 못해 가족들에게는 미안함도 있지만 선수와 지도자 등 전북 선수단은 내 고장인 전북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만큼 도민들에게 메달을 선사, 기쁨을 안긴다는 계획이다.

육상 종목에 출전하는 전북체고와 전북개발공사·전북도체육회 소속 선수들은 전주종합운동장과 군산 일원 등에서 경기력 유지와 컨디션 조절을 위해 훈련하고 있다.

또 전주시민축구단과 전주대·한별고 등 축구 선수들도 각각 자신들의 홈그라운드와 전지훈련 등을 통해 땀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제99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익산 등 전북 전 시군에서 펼쳐진다. /뉴시스



혁신성장 자본공급 생태계 기반 마련 최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왼쪽)와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성장 자본공급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한 전라북도-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협약(MOU)을 한 후 기념촬영을 했다.

전북도, 특별교부세 144억원 확보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SOC사업 등 지역혁신사업(113억원)과 중앙공모사업(25억원),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6억원) 등 특별교부세 144억 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이번 교부세는 포함해 9월 현재까지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총

426억 원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도에서는 14개 시군과 함께 행정안전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명, 특별교부세 확보 과정에서 각 지역 국회의원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도로환경 개선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과 지역복지관 사업 등 주민생활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예산을 대거 확보하여 관련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지역혁신사업은 도로 확포장 및 공영주차장 조성, 상수관로 사업 등 생활 밀착형 SOC사업과 노인복지관, 복합복지관, 평생학습센터, 다목적 체육관, 복합커뮤니티 사업, 전라김영재 창조 복지사업 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대되는 사업들이 대거 확보됐다. /김진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10주년

최상의 공공의료서비스제공으로
신뢰받는 남원의료원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www.namwonmed.or.kr
대표전화 063) 620-1114

응급의료센터 620-1119 건강증진센터 620-1160 인공신장실 620-1110 장례식장 620-1140

•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 문의 : 063-620-1650 •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운영 문의 : 063-620-1233